

연내 核 불능화 北 '통 큰 제안' 나오나

■ 힐 차관보 전격 방북 의미와 전망

美는 관계정상화 일정 제시할 듯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21일 전격 방북, 향후 한반도 정세 변화의 중요한 전기가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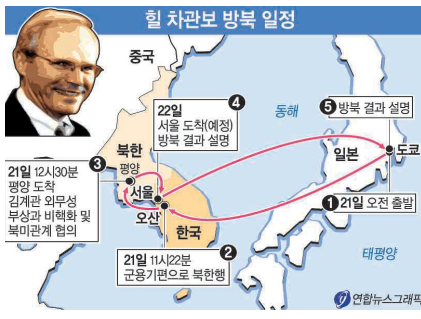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자금의 송금이 19일 완결되고 그에 앞서 북한이 16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표단을 초청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초기행동이 가시화하고 6자회담이 재개를 앞둔 상황에서 방북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북·미 고위급 간 평양화동을 통해 영변 핵시설의 폐쇄, 봉인과 향후 6자회담의 방향 등에 대한 사전 정치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전격 방문 배경 있으나 관심은 힐 차관보의 방북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졌다는 데 쏠린다. 그의 방북 시기는 다음달 재개될 6자회담 직후, 다시 말하면 빨라야 6월 중순쯤으로 전망됐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의 방북이 IAEA 대표단의 방북보다 먼저 이뤄졌다는 점은 다급한 미국의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식량난과 에너지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의 사정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으로서는 BDA 문제에 막혀 시간을 허비한 만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임기 내에 핵폐기의 전 단계인 불능화까지 가지



위해서는 발걸음을 재촉해야 할 형편인 것으로 보여지고 때문이다.

△북·미 큰 그림 그럴까=이번 방북은 시기적으로 2·13합의 이행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뤄진 만큼 이미 합의된 핵시설 폐쇄·봉인도 현안인긴 하지만 그 이후 단계에 속하는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양측이 불능화를 포함한 초기 조치 이후의 청사진을 그리

지도 주목된다.

이와 함께 북·미 관계정상화 문제도 현안이다. 이미 지난 3월 초 1차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가 뉴욕에서 열린 만큼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테러지원국 해제, 적성국과역법 적용 제외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입장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남북관계 선순환 물고 오나=힐 차관보의 방북은 일단 2·13합의가 정한 북한의 핵시설 폐쇄·봉인, 한국 정부가 6자 틀 내에서 상응조치로 제공하는 중유 5만 톤 북송 작업이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담론까지 긍정적으로 제기될 경우 그동안 2·13 합의에 막혀 제공하지 못하던 쌀 차관 40만 톤 북송을 결정해도 아무 문제가 없게 됐다.

결과적으로는 북핵과 남북관계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셈이다. /연합뉴스

힐, 김정일 국방위원장 만날수 있을까 부시 친서 휴대 여부가 관건

라이스 국무장관 방북 대비 히든카드 가능성

21일 방북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수 있을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은 작년 6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비롯해 그동안 공식·비공식 라인을 통해 대북 협상파로 분류되는 힐 차관보의 방북에 공들여왔다.

특히 힐 차관보는 2002년 10월 제2의 북핵위기를 만들었던 제임스 캘리 당시 차관보의 방북 이후 가장 급이 높은 미국 정부 인사의 방문이라는 점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힐 차관보의 의욕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작년 6월에는 BDA 문제로 6자회담이

장기공전상태였고 미국의 대북 무시 전략이 극에 달해있던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이 힐 차관보를 면담할 수도 있었겠지만, 현 상황은 북미간 갈등구조가 풀러가는 상황인 만큼 굳이 최고결정권자가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도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6자회담 재개-6자 외무장관회담으로 이어지는 향후 북핵회담일정 속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방북까지 거론되고 있는 만큼 김 위원장의 면담은 히든카드로 남겨둘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힐 차관보의 방북이 어떤 자격으로, 무슨 보따리를 들고 갔느냐에 따라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연합뉴스



한·일 해군 수색·구조훈련 각종 해상사고 발생시 한·일간의 공동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999년부터 격년제로 '한·일 수색 및 구조훈련'을 펴고 있는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20일 제주도 동북방 65마일 해상에서 줄을 지어 기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쌀과 북핵 분리” 정부 쌀 지원 입장 선회

6자회담 재개될듯

내달 초 베이징서 수석대표 회의

대북 쌀 차관에 대한 정부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그동안 쌀 차관 문제에 대해 '2·13 합의의 이행상황에 따라 시기와 속도를 조절한다'고 밝혀 와 북핵문제와 사실상 연계시킨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쌀 차관 문제를 북핵문제와 되도록 떼어 판단하겠다는 분위기가 강하게 느껴지고 있다. 이 같은 입장 변화는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1일 한 강연에서 “대북 식량지원 문제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연계시켜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식량은 조건을 걸어서 제공하는 것이 아

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외교부가 대체로 대북 쌀 지원이 북한의 2·13합의 이행 의지를 추동하는 지렛대로 사용되길 바라왔던 것으로 비춰온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다른 분위기가 느껴진다.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입장은 보다 직접적이다. 이재정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 출석, 쌀 차관 지원시기에 대해 “대북 쌀차관 문제는 근본적으로 2·13 합의조치와 직접 연계된 것이 아니다”면서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자금 송금문제 해결 등으로 (지원 재계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가 높아져 가고 있으니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지원할 수

있도록 실무적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 입장은 '2·13합의 이행 고려'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면 지금은 '직접 연계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논리의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는 평가다.

정부가 북한의 2·13합의 이행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다음 주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대표단의 방북 이전인 22일에 대북 쌀 차관 제공 방침을 발표하는 것도 “쌀 차관이 북핵문제와 연계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대내외에 보다 명확히 보여준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진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내달 초 베이징서 수석대표 회의

다음 달 초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가 베이징(北京)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 평화포럼에 참석 중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1일 “공식 6자회담이 열리면 비공식 6자회담이 7월10일 이전에 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앞서 3월 6자회담이 수석대표 회의를 끝으로 휴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재개는 다시 수석대표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현실화할 것”이라며 “초기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경우 7월 초 회의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남북 송전선로 59년만에 다시 연결

개성공단 평화변전소 준공... 10만kW급

고압 송전선로를 이용한 남·북간 전기 공급길이 다시 열렸다.

배전방식을 이용한 공급은 이미 2년전부터 이뤄져 왔지만 송전방식의 남북간 전력 공급은 북한이 1948년 5월 대남송전을 중단한 뒤 59년만이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1일 개성공단 현지에서 김영주 장관과 이윤성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이원길 한전 사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성공단 1단계 구역(330만㎡)에 전력 공급을 담당할 '평화변전소'의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개성공단 송·변전설비는 경기도 파주의 문산 변전소에서 군사 분계선을 지나 개성공단까지 총 16km구간에 350억원을 투입해 건설했으며 철탑 48기와 154kV급 송전선로, 개성공단 내 옥외변전소 등으로 구성됐다.



전력 공급량은 10만kW급으로 한전은 향후 입주기업과 전력수요가 커지면 변압기를 늘려 최대 20만kW까지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SASA
FOR CHILD & JUNIOR ROOM

SASA&틈과제리의 새로운 이름 "SASA"

아이들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도약해가는 새로운 SASA의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princess series

최고의 A/S

아동가구 13년! 아동학생가구 시장의 자존심을 세워나갑니다.

신속한 정비: 제품 배송과 동시에 고객님의 정보를 전산화하여 A/S신청 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처리: SASA 만이 SASA 가구를 A/S를 할 수 있으며, 수리하는 시간도 단축됩니다.

저렴한 비용: 제품 결함시 1년간 무상A/S, 이후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중 불편한 점이 생기면 A/S센터에 연락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A/S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최고의 Design

프린세스 원목 시리즈 출시

프린세스 원목시리즈는 미송 원목을 사용한 친환경 제품입니다. 가볍고 미려한 목리(나무결)를 가지고 있으며, 집성목으로 가공하였기에, 웅이, 뒤틀림이 없습니다. 사이즈가 넉넉해 어린자녀라면 부모님과 함께 잘 수 있으며, 중고생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국 A/S센터 대표번호: 1588-4434
홈페이지 www.sasakid.co.kr

세정아울렛 2층 임페리얼 광주상무점 OPEN

EVENT

여름 신상품

30~50% SALE (일부품목 제외)

햇살이 더욱 새롭게 느껴지는 계절. 하이브리드 캐주얼 인피리얼이 자신의 삶과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는 당신을 초대합니다. 삶의 멋을 즐기는 당신에게 감성 만족의 브랜드 자부심을 누릴 수 있는 이름, 임페리얼 그 주인공의 고가품을 만나고 싶습니까?

구매고객님께 사은품 증정 | 매장위치: 광주 세정아울렛 2F(엘리베이터 앞 에스컬레이터) T.062)384-8800